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6주일

제35권 34호(나해) 2015년 7월19일

[묵상]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들에게 바쁜 일도 많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한주간은
그처럼 바쁜 일상의 삶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숨 가쁜 현실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
펴보자.
일상의 삶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도록
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10:00 8:00 8:00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4:30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오후 특전미사후	10:00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8:30 9:00 1:00 3:00 1:45 1:00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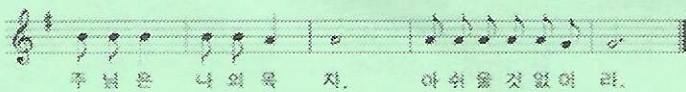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송 율리안나 & 이상윤 야고보, 민석준 토마스 & 민미애 & 민영준 마르코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김상진 토마스, 이종수 마틴, 고준희 제임스, 김영수 테레사, 이용수 요셉, 전시웅 요한, 구연석,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박수경 스테파노, 송학래, 이진행 힐라리오, 김홍천 루카, 김영식
	(생)엄효수 벨라도, 홍석인 체칠리아, 안연숙 루피나, 박영식 마오로, 김윤진 글라라 & 라이언, 민원희 안나, 이상훈 프란치스코, 주용순 모니카 & 김호인 벨라벳타, 이종원 베드로 & 린다 아네스 & 마테오 & 미카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eremiah) 23,1-6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13-18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마르코(Mark)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02	240	240
봉헌	264	269	269
성체	291	304	304
파견	417	235	232

열정적인 성격의 라헬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미(美)의 기준에서 큰 결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곱고 아리따운 자태에 야곱의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야곱의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어떠한 여성이었을까요? 라헬은 활달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심하게 질투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남편 야곱에게 협박하며 따졌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29,31-30,8

라헬은 언니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낳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늙으면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가능하면 여러 명의 아들을 갖기 원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주 특별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유대인 여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자신의 지위도 불리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당연히 아들을 낳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되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라헬은 자신의 임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0,14-24

훗날 라헬은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몰래 도망치게 되었을 때 맹랑한 짓을 저지릅니다. 남편도 모르게 아버지 집의 수호신을 훔쳤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소식을 듣고 야곱 일행을 뒤따라온 라반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라헬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1,1-42

라헬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라헬은 막내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라헬은 질투심이 강했고 욕심과 집착이 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평생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후 가족 묘지가 아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쓸쓸히 묻히게 됩니다. 끝없는 욕심에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웠던 라헬,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욕심에 관해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주님께서는()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얼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하지 못하는 몸이었다.”(창세기 29,31)

그리하여 라헬은 임신하여()을 낳고, “()께서 나의()를 없애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창세기 30,23)

'리필' 말고 '어게인'으로

1. “다시 모여서, 안전하게 살리라”(예레 23,3-6 참조)
함께 사는 후배 신부님들과 들렀던 동네 커피전문점에서는 ‘리필(refill)’ 대신에 ‘어게인(again)’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제게는 너무나도 신선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시고 있던 커피 메뉴를 단지 다시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메뉴로도 몇 차례 씩이나 바꿔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흠어져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들여 변성케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지 ‘다시 모이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의로운 씨’를 두게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나날이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2. “그분께서는 모든 이를 하나되게”(에페 2,14-16 참조)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청 외교관학교 소속 사제들에게 “다른 이들이 맛있게 차려 놓은 생선요리들이나 먹는 데에 길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내적(內的)나침반”을 잘 따르면서 ‘다리[橋]’가 되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다리가 됨’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에페 2,14)”이심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Gen聖歌)다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고 깊게 흐르는 강 우리를 가른다. 서로 물 건너 마주 바라보지만, 만나지 못한 채 그 눈길은 불신으로 가득 차.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3. “너희는 따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0-31 참조)
오늘 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리키신 ‘따로 외판곳’은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좀

더 하느님과 자신의 모습을 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실 페닝턴 신부님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의 충만함을 살 수 있다고 「향심기도」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재충전[리필]’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남[어게인]’의 길이 됩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지난달 18일에 이른바 ‘더불어 사는 집, 곧 지구’를 올바로 돌보는 길이 제시된 교황님의 두번째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따라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자세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세상이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길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더욱 일치하여 ‘잘 쉬고, 다리가 되고, 새로 나는’충만한 은총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 정연정 신부 /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내 이럴 줄 알았지

엄마 개구리, 소만큼 커지려고 배 부풀리다가
결국엔 배가 터졌다지.
쭉쭉 늘어나는 풍선도 너무 크게 불면 터지던 걸.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개구리가 아니잖아,
마음은 풍선이 아니니까 아무 걱정 없었어.
그리곤 내 맘 내 거라고
마음대로 부풀리고 날마다 불어 재겠지.
커지는 줄만 알았지 터질 줄은 몰랐던 거야.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요셉회 7월모임

- 일시 : 오늘주일(19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친교장
- 당일 모임 후 가족과 함께 음식 나누고자 하오니 부부참석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로 생테마를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도시락, 물
- 문의 : 장아네스 ☎ (310) 780-0369

◆남가주 남성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남성 7월 23일(목) ~26일 (주일)
여성 8월 27일(목) ~30일 (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atreat House
- 신청마감 :남성 7월 17일
여성 8월 14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4일(금)~26일(주일)
- 집합시간 : 2:30 pm 파킹랏(3:00pm정각출발)
- 준비물: 슬리핑백, 세면도구, 채킷, 주일헌금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모집

- 2015-16년도 백삼위 한국 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교우 분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초급 과정 교사, 보조교사
 - 문의 : 최이원 ☎ (213)700-9399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9일(주일) *토서2반: 북어국(\$3)
- 7월26일(주일) * 토남3반 : 콩나물,무생채 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태홍	경철호	고천용	곽효식	권태만	강숙경	강태홍	경철호	고천용	곽효식	권태만
	김병조	김상근	김우용	김원모	김유미	김윤진	김병조	김우용	김원모	노혜숙	모은기	석순영
	김정선	김형순	노혜숙	모은기	민순섬	박완철	안태갑	오명섭	원건희	유경자	이경수	이미예
	서영주	석순영	송기철	송종두	안태갑	엄영희	이영희	이우성	이용무	이일길	장영우	정규숙
	오명섭	오상준	원건희	유경자	이경수	이미예	정훈모	지경수	한혁수	홍광선		
	이영희	이우성	이용무	이은경	이일길	이재철						
	장영우	전정자	정규숙	정훈모	지경수	최수복						
	최의수	한창주	한혁수	홍광선	홍인표							
합계:\$6,590							합계 : 3,680					
주일미사 헌금 : \$2,589						주보광고 : \$2,920						

◆미주한국학교연합회1회 차세대 세미나

- 날짜: 2015년 8월 15일(토) 9a.m~8:00p.m 예정.
- 장소: Red Lion Hotel, Anaheim
- 등록마감: 7월 14일
- 참여 대상: 현재 한글학교 보조교사(9학년 이상)와 한글학교 졸업생 중 한글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전 과정 참석 시 수수료증 발급)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미주 평의회

- 제목: 봉헌을 위한 준비특강
- 대상: 전신자
- 준비물: 목주, 성가책 ☎(310)384-3289
- 일시: 8월 1일 (토) 오후 12:00~6:00
- 회비: \$5
- 강사: 김광태 야고보 신부님(전주교구 사목국장)
- 장소: 성바실 한인 천주교회 본당 지하
637 S. Kingsley Dr. Los Angeles 90005
- 문의: 이정화 헬레나 ☎(323)899-3202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전클라라(818) 317-6022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 시: 2015년 9월~2016년 6월
- 주관처: Loyola Institute for Spirituality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태옥 아가다 991-4838 7/14(화) 오후 6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이근테 세르지오 871-0787 7/25(토) 오후 5시 토런스파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7/17(금) 오후 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주량 요한 490-9662 7/11(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진영태 요한 909-557-7490 7/11(토) 오후 6시 중국식당
	3	박명순 안나 968-7600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7/7(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후 아네스 625-3312 7/19 (일) 12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데레사634-6923 7/14(화) 오전11시 강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7/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욱울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지영 안젤라 938-8089 7/19(일) 오전 11시 Delthone Park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49-3151 7/11(토) 오후 7시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415-9008 7/10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7/18(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정지영 프란치스코 503-927-0770 7/26(일) 오후 3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7/14(화)오전10시30분Hesse Park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30> 강경복 수산나. (1762~1801년)

강경복 수산나 강경복(姜景福) 수산나는 1762년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궁녀가 되었으며, 순교할 때까지 동정으로 생활하였다. 그녀가 살던 집은 ‘양제궁’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폐궁’(궁궐에서 쫓겨난 왕실의 친족이 거처하던 집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렀다. 그 집의 주인은 송 마리아와 그녀의 며느리 신 마리아였다. 이들은 일찍부터 천주교에 입교하여 주문모(야고보) 신부나 여회장 강완숙(골롬바)과 자주 왕래해 오고 있었다.

1798년 무렵 집주인 송 마리아는 강경복 수산나를 불러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면서 이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이때부터 수산나는 다른 궁녀들과 함께 교리를 배우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다. 또 집주인들과 함께 자주 강완숙의 집으로 가서 주문모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나 신앙 집회에 참석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주 신부로부터 영세를 하게 된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1801년 2월 신유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문모 신부는 노비 남구월의 안내를 받아 양제궁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수산나는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갔다가 우연히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양제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 때문에 주 신부는 다행히 그곳을 빠져 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주 신부가 피신한 뒤 수산나도 양제궁을 몰래 빠져 나와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뒤따라 온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수산나는 즉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미 천주교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포도청에서는 그녀를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이송하였으며, 그녀는 이곳에서 더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진 탓에 잠시 마음이 약해져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의금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듣자 수산나를 형조로 내려 보냈다. 그러자 그녀는 의금부에서 잠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을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박해자들이 주문모 신부를 밀고하고 마음을 돌이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신앙을 위해 형벌과 죽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문초가 끝나자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다.

“저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서 이를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였으며, 양제궁에 거처하면서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이 갈수록 굳어져 왔으니, 형벌을 당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신앙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수산나는 마침내 강완숙 등 동료 8명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에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39세였다.

성체는 어떤 마음으로 영해야 할까요? [교리상식]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이자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된 ‘길’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브랜든의 샌드위치 [햇별 한 줌]

백혈병으로 2주 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 마디였습니다. 그때 브랜든의 눈에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사연을 본 한 대형 마트에서는 식 재료를 무료로 보내주었고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미루어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 3천 5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브랜든에게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소년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남기고 간 한 마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톨릭 곳 뉴스